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3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6)	봉헌 (215)	성체 (165)	파견 (286)
---------	---------	----------	----------	----------

미사 전례 예절

- 사제가 미사 중간 중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사제를 향해 간단한 목례로 인사할 수는 있으나 허리를 굽혀하는 깊은 절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말로만 주고받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때에도 허리를 굽히며 예를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도신경을 바칠 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에서는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해야 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16	이 그레이스	이 요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텔파노
9/23	이 마틸다	이바오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텔파노
9/30	유 요한	이 요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텔파노
10/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황 스텔라	박 다니엘/황 스텔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00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10/2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11/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1/10	김 마론/ 김 헬레나
10/13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1/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0/20	김 요아킴/ 고 안나	11/24	황 가롤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0 월 4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10 월 14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그 동안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는 넷째 주일(9 월 23 일)부터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오늘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야드세일 9 월 15 일(토)

어제 있었던 야드세일의 수익금: 307.00

갑작스럽게 결정됨에도 참여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서 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침묵의 주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여섯 살 때의 어느 겨울밤. 끈히 자던 제 귀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롱한 종소리와 어우러진 차임벨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집 주변 어느 교회였던 듯합니다. 그 소리에 홀리듯 잠에서 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창문 바깥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드러운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곡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은은하게 공명하는 울림 안에서, 어린 마음에도 지극히 성스러운 어떤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윽고 음악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저는 음악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침묵 속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만난 성가입니다. 하루 종일 전축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접했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에 들어간 저는 곧 성가대와 인연을 맺어 오르간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흥이 나서 성가를 부르더라도 하면, 사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저는 오르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성체 후 묵상 시간에 오르간은 작은 소리로 묵상 곡을 연주하지요. 저는 종종 성가 풍의 멜로디를 즉흥 연주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걸 지어서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그 곡들을 바쳤습니다.

그 뒤 대학 시절 이후에는 성당에 발길을 끊기도 했습

니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은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쓰라린 실패로 심란하기 이를 데 없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다시 빈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홀로 앉아 있던 저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지었던 묵상곡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성가인 ‘침묵의 주’라는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뒤 미사곡을 작곡하고 생활성가 밴드인 ‘성밴드’에 참여하며 성음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빈 성당에 앉아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침묵 중에 감실의 붉은 불빛을 쳐다보노라면, 오래전 어느 밤에 아이의 심금을 울리던 영감적인 차임벨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천상의 음악은 지상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아름답겠지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결코 슬프지 않을 겁니다.

-서울주보 에서-

교리상식 **충고해가 뭔가요?**

충고해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한 것이거나 어떤 특별한 주제와 관련한 개인사를 고해성사를 통해 개방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본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다시 소급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고백은 했지만 그것을 과장이나 축소하여 고백했다면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충고해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충고해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신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